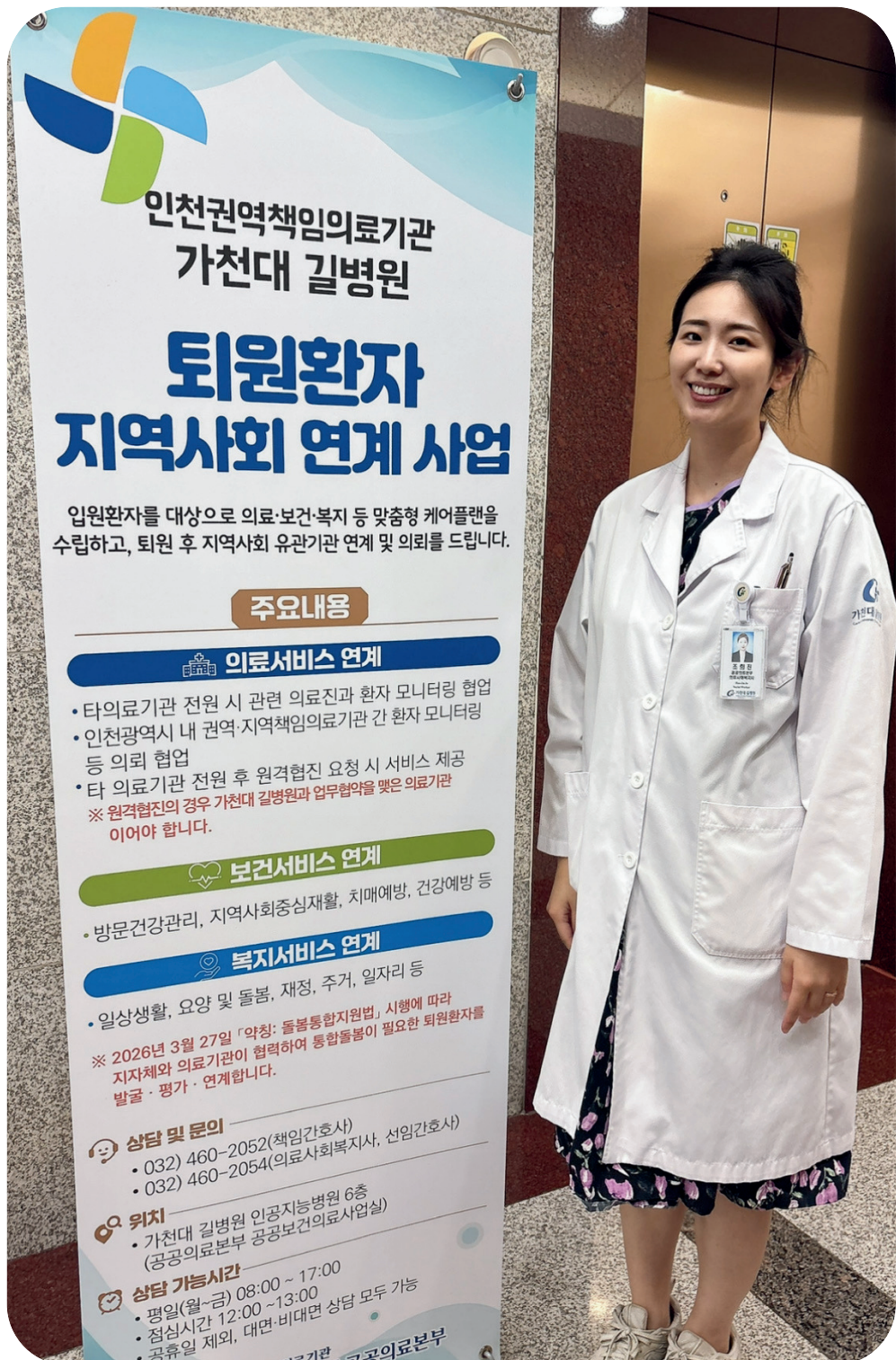


사회복지학과 07학번

조희진 졸업생

소속: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 위: 의료사회사업가



Q1. 광주여자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떤 시간이었나요?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전공 공부에 충실했고, 봉사활동과 다양한 기관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학과 기획처장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맡아 소통과 리더십을 키웠으며, 학업 성적과 품행을 인정받아 총동문회장상을 받았습니다.

Q2.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한 이후 어떤 경력을 쌓아오셨나요?

졸업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1년간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거쳐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살피고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Q3. 현재 의료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치료가 끝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진료과와 협력부서,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Q4.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실무자들과도 나누고 계신다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과 책임의료기관 관련 워크숍 및 강의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다른 실무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모교와 후배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나누고 계신데요.

2026년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제에 졸업생으로 초청받아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의료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와 현장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Q6. 광주여자대학교는 지금의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여대는 저의 사회복지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모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수련에 도전했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며 지금의 의료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7.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먼저 경험해보고, 지금의 작은 경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실습,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